

일주문

월서 스님 캄보디아 지원
천호희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은 5월 22일 서울 봉곡사에서 캄보디아 승왕 템봉 스님에게 캄보디아 왕립불교대학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서울 조계사 33관음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33일 관음기도를 진행한다. (02)732-2183

정도희 명상수련 실시
정도희 지도법사 범륜 스님은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 3회에 걸쳐 경북 문경 정도수련원에서 명상수련을 실시한다. (010)9070-9581

서산 부석사 사찰음식잔치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6월 9일 부석사 경내에서 사찰음식잔치와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다. (041)662-3824

해남 미항사 단기출가학교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은 7월 1-10일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출가학교를 개최한다. (02)2011-1803

황학사 산사음악회 봉행
칠곡 황학사 주지 선각 스님은 5월 19일 부처님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054)975-3235

〈인사〉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24일 강화 전등사 신임 주지에 범우 스님 <사진>을 임명했다. 범우 스님은 1995년 해인사에서 해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9년 직지사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덕숭총림, 해인총림, 석종사 금봉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한스조계종복지타운 관장 도법 스님

한국스리랑가 조계종복지재단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한스조계종복지타운 관장에 도법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도법 스님은 조계사에서 현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연화사 주지, 진주교도소 교정위원, 통영경찰서 경승실장 소임을 맡고 있다. 신종일 기자

경허 무애행보다 선수행에 주목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지운 스님

“경허 스님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수행정진을 생활에서 펼치신 분입니다. 이번 국제선수행대법회는 외국인 스님들을 비롯해 많은 대중들에게 경허 스님의 수행가풍을 알릴 뿐만 아니라 세계에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의 열반 100주년을 맞아 선수행대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지운 스님(수덕사 주지·사진)은 “경허 스님의 수행정진을 이 시대에 옹골케 펴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진행하는 국제선수행대법회는 6월 7-9일 2박 3일간 덕숭총림 예산 수덕사에서 열린다. 이날 국제선수행대법회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수좌 스님들과 외국인 스님들, 재가자들이 직접 담론과 실수를 진행하는 무차대법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경허 스님이 수행하시던 전장사, 개신사 등 보리처를 찾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지운 스님은 이번 국제선수행대법회로 새로운 선수행 문화 보급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지운 스님은 경허 스님의 수행가풍에 대한 새로

운 조망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열한 수행, 걸림 없는 삶,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가 경허 스님의 수행가풍”이라며 “경허 스님은 수마를 찾기 위해 송곳을 턱 밑에 대고 정진하셨으며 백척간두에서도 진일보하는 정진을 보이셨다”고 소개했다. 지운 스님은 현대인들이 경허 스님의 수행보다 무애행의 모습에만 치중해 스님이 펼친 선의 경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운 스님은 “스님의 범어·선시·삶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경지임에도 왜곡되고, 전도되고 있다”며 “경허 스님의 무애행은 자신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무애가 뛰어났다. 진정한 참 무애행은 보살행이라는 데서 시작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운 스님은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문화와 수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수행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알고 생각하는 습을 점점 증장시켜 수행을 할 때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참 나의 즐거운 삶이 될 것”이라며 선수행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불교스카우트로 어린이포교 이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회장 송묵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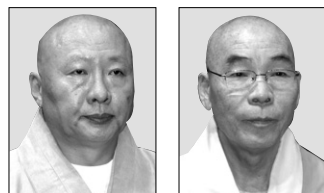
“어린이 포교의 새장을 열 불교스카우트가 드디어 첫발을 내딛습니다. 불교 미래를 위한 시작에 불자들의 힘찬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한국불교의 미래, 새싹 포교를 위한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었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 위원회(회장 송묵)는 6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하 불교스카우트) 창단 고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불교스카우트 창단에는 주축으로 활동한 어린이·청소년위원회의 노고가 숨어 있었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송묵 스님(포교원 포교부장·사진)은 “불교스카우트는 어린이들의 인성교육과 협동정신 함양을 통한 불교의 이타심을 기를 수 있다. 불교스카우트 창단을 통해 어린이 포교 활성화가 증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묵 스님은 1200명 이상의 회원에 5개 도시 이상의 지부가 구성돼야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정식 인가된다. 어린이·

송묵 스님은 “아이들이 단순한 사찰 법회에 오지 않는다”며 “주5일제 시행을 맞아 자연체험, 문화체험, 자원봉사 등 다각도의 프로그램으로 불교가 접근해야 한다. 스카우트는 그런 의미에서도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송묵 스님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로 어린이 포교와 교육에서 불교계를 넘어선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기개발 분야에 앞선 시스템이 갖춰진 스카우트를 통해 불교의 불성사상과 자비사상 등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향후 60개 사찰로 회원 사찰을 확대하고 3000명 규모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소 설립도 구상 중이다. 송묵 스님은 “스카우트는 전국에 넓게 펼쳐져 진행돼야 하지만 참여가 활발한 서울지역에 비해 지방에서의 참여가 미흡하다”며 지역 사찰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불교스카우트는 어린이에게 아름다운 꿈을 청소년에게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그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년을 내다보는 어린이포교의 첫걸음을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덕현 기자

성각·성관 스님 교정대상 수상



서울신문과 KBS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3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불교를 통한 수용자 교화에 힘쓴 성각 스님과 성관 스님이 저비상을 수상했다. 부산 교도소 교정위원인 성각 스님은 부산 흥은사 주지로 22년 8개월을, 수원구치소 교정위원인 성관 스님은 원용중 총무원장으로 12년 8개월을 불교를 통한 수용자 교화에 노력해왔다. 이날 5월 16일 열린 교정대상 수상식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동화 서울신문사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교정공무원 등 17명이 수상을 영예를 안았다. 이은정 기자

제6회 선리학술상시상식 개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1일 서울 성북동 정법사에서 제6회 학술상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이 좌장을 맡는 이날 학술회의에선 △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을 통해서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이차량 동국대 HK연구교수) △ 융성선사의 선밀쌍수에 대한 고찰(김치은 위덕대 겸임교수) △ 1930년대 불교잡지 동화의 성격과 ‘전시동화(戰時童話)’의 문제(박상남 강남대 연구교수) △ 일본계 미국 선(禪)의 여성과 사회참여 그리고 간학선 세계화에 대한 제언(장은화 조계종 국제포교사) 등 논문이 발표됐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삼보 스님, 동국대에 세조 어첩 기증

삼척 기원정사 주지 삼보 스님은 5월 15일 동국대 도서관에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조선 세조 작성)이 실린 세조의 어첩(御牒) 영인본을 기증했다. 이 어첩은 세조의 권선문과 이를 한글로 옮겨 쓴 언해본 등이 실려 있으며 세조가 직접 쓴 수필과 옥새, 자성암비 윗씨, 세자, 세자빈 한씨, 효령대군, 정의공주, 정인지, 신숙주, 한명회, 구자관 등 241명의 서명이 들어있다. 어첩의 진본은 국보로 지정돼,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돼있다. 노덕현 기자

동대부고, 자비의 쌀 30가마 기증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교장 오택원)는 자비의 쌀 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인 쌀 30가마(1,220kg)를 5월 25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전달했다. 향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기증 받은 자비의 쌀을 동대병원 등으로 보내 형편이 어려운 임원 환자나 소아 환우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동대부고 학생대표가 심정민 생명나눔 사무총장에게 쌀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10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경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정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제10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I 포교대상
응모 대상 (개인 혹은 단체)
① 출가 부문 : 32(곳) 이내
② 재가 부문 : 32(곳) 이내
상금 : 총액 5,000만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① 출가 부문 (개인 혹은 단체)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혹은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② 재가 부문 (개인 혹은 단체)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II 콘텐츠대상
응모 대상 (개인 혹은 단체)
① 스토리텔링(대본 등 제출), 다큐멘터리(DVD/대본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드라마(DVD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DOODRAMA(다큐+드라마, DVD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② 영화(DVD/대본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애니메이션(DVD/대본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INFORTAINMENT(정보+오락, DVD/대본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③ 오디오(작곡 등)
④ 미술·일러스트레이션
⑤ 상기 및 관련 분야 중 1개 작품 또는 그 이상
상금 : 총액 4,000만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① 본인 또는 단체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공동제작·협력 등 관련 기관·단체 또는 외부 자원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는 불가함).
② 응모자가 문화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 경험 증명 시 심사 시 참고함.
③ 영상자료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
\* 각 분야에 대해서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후보자 혹은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 2012년 9월 3일(월) ~ 9월 20일(목)
제출서류 :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t.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10회 대원상 지원서(신청양식, 응모자 사진 부착)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보빌딩 15층, Tel. (02) 719-2606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 소인 유효)
사상식 : 추후 발표함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아간 및 통신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Description. Courses include Basic Course (3 semesters), Intermediate Course (3 semesters), Practice Class (1 year), Practitioner Course (1 year), and Specialized Course (1 year).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6월 중
◆개강일시 : 2012년 6월 중.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명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